

고졸 인재 교육·취업·정착 생태계 구축 나선다

광주시·시교육청·지역대학·직업계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약 플랫폼 구축·우수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인재 성장 경로 마련

광주시와 교육청, 대학, 직업계고들이 고졸 인재 양성에 손을 잡았다. 이들 기관·학교는 20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은 호남대, 송원대, 동강대, 조선이공대 등

4곳이 참여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에너지, 미래형 운송기기 등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도록 올해부터 3년 동안 직업계고와 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지원체계

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특히 지역대학 신입생 미달에 따른 신규 입학자원을 확보하고 직업계고 신입생 감소, 기술인재 역의 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에 사업 운영을 주관할 '빛고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 학생 선발도 준비 중이다. 또 대학,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산학관 협력 기반도 다지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비전을 공유해 우수기업 취업부터 후속지원까지 지역 고졸 인재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각종 일자리 사업의 연계,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청은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학생선발 등을, 대학은 참여학생의 선취업-후학습 및 대학학점 선이수 지원을, 직업계고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 선택, 취업교육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 인재들의 취업난, 기업이 겪는 인력난, 대학의 신입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직업교육 혁신지구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광주형 직업교육 모델로 자리를 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시와 대학, 직업계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선 8기 광주시 첫 조직개편안 반대 여론 높아 의회 통과 '난망'

시의회서 불통·업무중복 제기 시민사회단체도 우려 표시

민선 8기 광주시의 첫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광주시의회 통과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강기정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을 추진할 '신활력추진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신활력추진본부 비대화, 업무 중복, 팀 명칭의 불명확함 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특히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부실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다은 의원은 "시장이 시정 연설에서 (의회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천명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충분히 심사할 수 없었는데,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활력총괄관·관광도시과·도시공원과·수변레저 조성과를 둔 '신활력추진본부'에 업무가 집중되고 중복된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채은지 의원은 "신활력추진본부는 업무가 중복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관광 계획 수립, 공원 조성, 생태하천, 수변공간 등 업무가 너무 비대해 (업무 분담 등에서) 리스크(위험)가 크다. 조직 축소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필순 의원은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해 "핵심 현안을 한 곳으로 모았는데,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날 조직개편안을 의결하지 않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현재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해당 상임위원 행자위 통과, 25일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도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유한 특색을 가진 각 분야의 업무들이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 기능이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희생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교육포럼재단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화와 관광 업무 이원화-문화관광체육실 축소를 전제로 한 조직 개편안을 제고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화경제부시장의 위상과 역할이 사라졌는데, 강기정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인 기구를 신설하면서 최소한의 문화행정 컨트롤타워 역할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 2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뒤서 사실상 지역 문화계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제한됐고, 이는 시민의 대의 기구인 광주시의회도 별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앞서 19일 성명을 통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던 하천 관련 업무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의 국제선 취항식이 20일 오전 공항 2층 출국장에서 진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 등 내빈들이 출국장에서 승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20일 오전 베트남 다낭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기가 2년 4개월만에 무안국제공항을 이륙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으나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 베트남 달랏,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비행기도 조만간 무안공항에서 탈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날 무안공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산 무안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김이배 제

주항공 대표이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선 운항 재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항공은 베트남 다낭 주 2회, 오는 27일부터 태국 방콕을 주 2회 오가는 정기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베트남 비엠헤항공, 몽골 훈누에어 등 외국계 항공사에서도 베트남 달랏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은 7개 노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선의 경우 각각 주 2회 운항하던 제주와 김포 노선이 지난 6월 25일부터 주 3회로 증편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울산 노선도 7월 1일부터 주 2회로 운항을 재개했다. 김 지사는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세계적 공항으로 우뚝 서도록 재정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제주공항처럼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美 캘리포니아 와인축제로 전남 식품 인기몰이

전남도, 전통주·스낵류 홍보

전남도가 미국 캘리포니아 최고 음식축제인 '캘리포니아 와인 축제'에서 전통주와 고품격 스낵류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 미주사무소는 지난 16일까지 2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와인축제'에서 현지 요식업계 관계자와 주요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전남산 우수 식품을 홍보했다. '캘리포니아 와인축제'에는 현지 고급 레스토랑 및 식품 유통 관계자, 주류업계 전문가, 누리 소통망(SNS) 활동가 등 4천여 명이 참가했다.

축제 기간 한국인 최초 마스터 소믈리에 김경문 씨가 국내산 막걸리와 증류주 등 전통술 소개코너에서 광양산 매실주와 유자주스(고흥 에덴식품) 등을 활용한 칵테일을 만들어 와인 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미국 코스트코와 아마존에서 현지인에게 인기가 있는 오징어스낵(여수 아라움), 김자반(목포 선일물산) 등 고품격 스낵류를 홍보하면서, 와인과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안주 시식행사를 진행해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지점, 각학지점